

고쳐쓰고 빌려쓰고 다시쓰고... 운영비 2000억 아꼐다

U대회 성공 비결 EPIC

2015광주 U대회의 비전 'EPIC'의 사전적 뜻은 서사시(敍事詩)다.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과 광주 U대회조직위원회는 EPIC의 개념을 친환경(Eco), 평화(Peace), 기술(IT), 문화(Culture)의 첫 글자와 조합했다. 전 세계 대학생, 젊은이의 대축제인 광주 U대회 서사시 속에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지향할 4가지 키워드를 함한 것이다.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는 개최지 확정 후 6년간의 대회 준비기간 동안 4가지 비전을 충실하게 완수했고, 그 결과 역대 최고의 성공 대회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저비용·고효율·친환경 에코비시아드

선수 대기실은 몽골텐트로 시상대 등 인천AG 재활용 허례허식 없이 비용 최소화 '태양열·지열' 친환경경기장

◇저비용·고효율 에코비시아드=2015광주 U대회는 역대 국제 대회 사상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들어간 '자린 고비' 대회로 통한다. 허례허식을 과감히

빼 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선수단엔 진심을 담은 남도의 정성으로 큰 감동을 안겨줬다. 화려한 외형보다 내용이 알찬 실속대회를 선택한 것이다.

정부는 물론 전 세계도 광주 U대회의 친환경Eco 전략을 극찬했다. 특히 대형 국제대회를 앞두고 재정문제로 고민이 많은 여러 도시들에겐 광주의 시스템이 '롤 모델'이 됐다.

'다시 쓰고, 빌려 쓰고, 얻어 쓰는' 철저한 예산 절약으로 광주시와 조직위원회는 8171억원이었던 총 사업비를 6172억원으로 줄였다. 무려 1999억원을 절감한 것이다.

준비용 대회는 민선 6기들어 절정을 이뤘다. 윤장현 U대회 조직위원장(광주시장)은 지난해 취임 첫 일선으로 U대회 예산 절감을 지시했다. 윤 시장은 "국제대회 과잉투자가 광주시의 재정과 미래를 발목 잡아서 안된다"며 "알뜰하면서도 내용에 충실한 대회, 유니버시아드 이념에 부합한 대회,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대회로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졸라매고 있었던 광주 U대회 조직위는 추가로 비용 절감에 나섰다. U대회 조직위는 이미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선수촌 문제를 도심재생 방식으로 풀어낸 터였다. 지난 지 30년이 넘는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해 선수촌으로 활용한 뒤 대회 후 기존 주민 및 새롭게 분양 받은 시민들이 사용토록 한 것이다.

경기시설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설 신축을 최소화했다. 수영장과 양궁장, 다목적체육관(신축), 테니스장(증축) 등 4개 경기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5개 시설은 기존 시설을 개보수했다. 또 부족한 시설은 인근 전남·북과 충북의 도움을 받았다. 이를 통해 기존시설 활용률 95.7%를 기록, 국제 대회 사상 가장 알뜰한 대회로 이름을 남겼다.

신·증축 경기장도 친환경 코드에 맞춰 태양열, 지열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설계와 운영비 절감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대회 개최 후 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장 신축 등을 우선하는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과 20차례의 협상을 벌여 경기장 시설 기준을 다폭 완화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각종 시설물에도 자린고비 전략을 그대로 적용했다.

배구장, 농구장, 태권도장은 고정식이 아닌 접이식 의자를 설치했고, 선수대기실, 휴게실, 경기 전 선수들이 몸을 푸는 공간 등도 몽골텐트를 설치해 대회 후 철거토록 했다.

하프마라톤과 경보 경기는 같은 구간을 여러 바퀴 뛰는 방식으로 변경해 새로운 코스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였다.

클로드 루이 갈리앙 FISU 회장 등 국내외에서 극찬을 받았던 개·폐회식도 2013카잔U대회 개·폐회식 제작비 1200억원의 10분의 1도 안되는 113억원이 투입돼 그 이상의 효과를 냈다. 특히 금·은·동메달 수상자만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시상대 153개와 메달 받침대 67개는 인천아시아게임 조직위에서 물려받아 사용했다. 시상식 때도 전 세계 국제대회

에서 사용되는 꽃다발 대신 누리비 인형을 증정해 8억원을 절감했다.

광주시와 대회 조직위의 에코비시아드는 대회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 이번 U대회 때 재활용한 물품들은 오는 10월 경북 문경에서 열리는 세계군인선수권대회에서 재사용된다. 신축 경기장 등 대회 시설물도 수익시설로 재단장해 관리비용 절감에 나선다. 아시안게임을 치른 인천 등이 대회 종료후 겪고 있는 막대한 시설 유지비용에 따른 재정난 등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게 광주시의 목표다.

평화와 나눔, 연대 피스비시아드

시·조직위·시민 삼위일체 어려운 선수 아낌없는 지원 바가지 대신 텀 얹어준 상인 남도의 정으로 선수단 감동

◇연대·나눔·평화 피스비시아드=광주 U대회는 연대와 나눔, 참여와 배려, 그리고 따뜻한 남도의 정이 어우러진 평화 대회를 실현했다. 광주는 이미 불참을 선언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개최지 당일까지 기다렸다. 588석을 복한 선

수단과 응원단 좌석으로 지정하고 개최식이 끝나는 순간까지 비워뒀다.

윤장현 조직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최식 빈자리의 의미에 대해 '함께하고 싶었고, 함께 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우리는 한 핏줄 한민족이다. 분단 70년의 아픔을 넘어 통일의 노릇을 놓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광주시와 조직위, 광주시민들은 삼위일체로 남도 특유의 따뜻한 정을 선보여 외국 선수단의 감동을 이끌어 냈다.

광주시민들은 카브리헤 최대 빈국 아이티에서 나 홀로 참가한 알티모스(태권도 선수)는 보호장구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사연이 알려진 후 장구는 물론 체류비 지원 등 각종 후원에 나섰다. 앞서 광주시민들은 지진 참사를 겪은 내발 선수단을 위해 모금한 1017만원을 항공요금 등으로 지원했다. 이들 외에도 떨어진 운동화를 기워 쓰는 선수 등을 위한 물품 지원을 비롯한 경기부, 경기장비 등의 지원도 불철을 이뤘다.

익명으로 국민국 참가 선수단들에게 점심과 저녁 등을 대접하는 등 광주시민의 따뜻한 정성도 가득했다. 비 예보 소식에 광주시청 공직자들이 출근길을 멈추고 자신의 집에 있는 여분의 우산 300여개를 모아 선수들에게 전달한 것도 남도의 정을 알린 에피소드다. 국제대회의 고정적 별명 중 하나인 바가지 요금은커녕 오히려 물건값을 깎아주고 텀까지 얹어주는 재래시장 상인들도 한국과 남도 정을 각국 선수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제대회 사상 첫 도심 재생 방식으로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한 광주시 서구 화정동 U대회 선수촌 아파트(35개동 3726세대·지상 15~33층)는 오는 17일 폐촌식을 끝으로 내부수리 등을 거쳐 내년 4월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특별취재단=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경기 수준·경기장 시설 모두 훌륭 자부심·행복 느낀 대회였다”

갈리앙 FISU 회장

“이번 광주U대회는 ‘자부심’과 ‘행복’이라는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광주U대회 주최 기관인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 클로드 루이 갈리앙 회장은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선수단과 대표단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회를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광주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변수가 있었다”며 “조직위와 FISU의 무위원회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전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대회를 준비한 지난 6년간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광주시와 조직위의 저비용·고효율이라는 목표와 선수들에게 최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FISU의 관점이 달랐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갈리앙 회장은 “예로 조정경기장은 광



주와 멀리 떨어진 중주에 있었으나 경기장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시설을 활용했고 선수촌도 분양에 들어가는 등 사후 모든 시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칭찬만한 조치였다”며 “상당한 논의를 거치는 등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만큼 격정이 앞섰으나 경기 수준은 물론 경기장 시설 모두 훌륭했다”면서 “광주가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 아닌 6년간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기간 3만여 명이 땀흘려 준비했고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고 자랑했다.

갈리앙 회장은 “U대회 개최 도시마다 특징이 있는데, 광주는 이전 선전과 카잔 대회와 비교해 선수와 대표단들이 시민들에게 느낀 친근함”이라면 “U대회 정신인 우정과 교류를 말뿐인 아닌 몸소 실천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특별취재단=박기용기자 pboxer@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는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원 자녀 중에서 애학심이 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기능이 뛰어나고 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I. 지원 자격 및 선발 인원

- ◆지원 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 회원 자녀 중, 중·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2014년 8.1현재 주민등록이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둔 학생
- ◆선발예정인원: 총22명 중 광주지역 10명, 영광지역 12명 (중학생 0명, 고교생 0명, 대학생 0명)

II. 선발 방법 및 구비 서류

- ◆선발 방법
 - 영광군민의 자녀 중 영광군수가 추천한 자(영광군 추천양식에 의한, 영광군청 문외)
 - 재광영광군향우 자녀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확정된 자
- ◆구비 서류(재광영광군향우 자녀)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통장 사본(본인명의에 한함)
 - 성적우수자는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기능보유자나 선행학생은 증명할만한 자료 사본
- ◆구비서류 양식은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hmygg 링크

III. 선발 일정

- 서류접수: 2015년 7월 6일) ~ 7.31(금)
- 최종 확정 안내: 2015년 8월경 발표(개별 통지)
- 장학금 지급 및 중서 수여: 영광군민 자녀-영광군민의 날(9월 예정)
- 재광영광군향우 자녀-재광영광군향우회 송년 행사 (12월말 예정)

IV. 신청 방법

- 우편·방문접수
- 신청 및 문의처: (502-882)광주광역시 서구 유원로 100 (동천동 예천빌딩 7층)
- 전화: (062)522-8422 사무국장 임재경: 010-8667-6143

V.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재광영광군향우자녀는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사무국으로 제출